



## 지식 기반 사회에서 철학은 무용지물인가?

백 승 균 | 계명대 철학과 교수

사람들은 철학을 고답적인 학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현실을 떠나 이상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기에 철학이 이상의 생활인을 떠나 있기만 한다면 철학은 분명 공허할 것이고, 그렇다고 생활인 속에만 있다 해도 그러한 철학은 상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열린 세계로 향하는 능력 자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 자체란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만 집착하고 마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몸에도 얼굴만이 있지 머리는 없습니다. 머리는 텅 비어도 표나지 않지만, 얼굴의 굴곡은 한나절만 가도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누가, 어느 능력 있는 철학자가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빵 굽는 기술보다는 그 능력을, 다시 말하면 현상보다는 본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사회가 그러한 철학을 용납하지 않으니 철학이 머리 둘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하기에 철학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되새겨 보면 남을 탓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철학이 존재 자체나 인

간 이성 자체에서라기보다는 인간 삶의 한 연관성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철학은 살아서 생동하는 현실이고, 현실을 가능케 하는 본래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를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라 하고, 이러한 사회를 지식 기반의 사회라고도 하지요. 지식 기반 내지 정보화 사회의 기틀은 먼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정보 혁명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혁명은 기술에서 가능하였고, 기술은 과학에서 가능하였으며 그리고 과학은 수학적 논리성에서 가능하였습니다. 수학이 대상에 대한 형식적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라면, 수학은 다만 논리적 관계를 규정하는 가상 학문, 다시 말하면 현실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현실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순수 사유의 초월적 원리에 바탕을 둔 선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명제를 칸트는 '선험적 감성론'에서 순수 수학의 가능성으로 다루어 시간-공간의 순수 직관의 형식에다 설정한 반면에, 마르크스는 XY 선상에 있어서 시간은 1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이라 하여 시간-공간의 수학적 명제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회과학적 명제로 바꾸어 놓았지요. 이러한 수학적 명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 가능토록 함으로써

인간은 마침내 첨단 기술의 재해를 막을 수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유전자 지도까지도 마련할 수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하게 되고 결국 허구에 빠지게 되는지. 더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가 하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기반을 상실하여 고향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지요! 고향 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가상공간의 지식 기반 사회로 제정신 없이 급가속 페달만을 밟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멀티미디어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 사회를 하나의 실체로 보느냐 혹은 하나의 허구로 보느냐, 또한 그러한 사회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생성론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학적-해석학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중심은 무엇이고 주변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들이 이 시대, 이 사회의 우리들을 하나의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가 아무리 확고부동한 현실적 실체라고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분명한 존재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흐트러질 수 없는 중심체제로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제와 연관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해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숫자를 문자로 해독하여 내는 일이나 문자를 새로운 의미와 살아 있는 생명으로 해석하여 내는 일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변하는 철학 내지 인문학의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현대사회의 정보 기술이 이제 실제의 현실 공간에서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공동체 사회란 그 본성상 너무나 인간을 닮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제치고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주객을 전도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참된 것의 자태는 인성을 인성 그대로 살아 남게 하는 인간 삶의 본래성에

“

오히려 인간 삶의 생성으로부터 삶 자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근원성으로 되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 때, 어떠한 존재론에서도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현실적 삶을 우리가 되길 수 있는 것이다.

”

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먼저 철학의 존재론적 반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존재론에 대한 반성은 수학과 과학 그리고 정보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식 기반의 사회가 서양철학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이란 어떠한 형태이든 유(有)를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적 지고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의 대상에는 존재자 자체는 물론이고 인간 존재와 함께, 심지어 오늘날 디지털 영상까지도 포함됩니다. 더구나 인문학의 절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해석학의 이해 문제 역시 존재론의 지평에서 해석되고 있다면 존재론의 위력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찌 이 철학의 한 영역뿐이겠는가 하는 것입니

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 영역에도 이 철학적 존재론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정치 이념이나 후기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논리에도 철저히 이 존재론적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되며, 민주사회의 자유 이념에도 존재론적 논리가 중무장을 하고 있지요. 문화 역시 독자성과 본래성이 용납되는 민속 문화 대신에 속전속결의 초고속 전자 문화가 존재론의 가면을 쓴 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가 하면, 종교마저 실체라는 존재론을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무장과 가면 그리고 종교 행세를 무엇으로 어떻게 그 본래성의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는 일방의 철학적 존재론 대신에 살아서 생동하는 인간 삶의 생성론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생성론은 쌍방 통행이 가능한 관계론을 지칭하고, 그러한 관계론은 현실성의 요소에 관계하는가 하면, 동시에 비현실성의 요소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론의 전형은 나와 너의 관계, 음양의 관계 혹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이나, '생명'의 문화 운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비진리로 되고 내일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의 전제는 살아 있음이고, 살아 있음은 그 생동성으로 인해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철학이 생각하는 사유의 학으로서 등장한 이후, 철학의 중심부에는 존재론이 실체로서 자리잡았고, 이어 그 전권을 영구히 행사하기 위하여 철학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철학적 보편성을 지목하였



지요. 그러나 그러한 존재론적 보편성만으로는 검증될 수 없는 실천적 진리의 양면성을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짚어 준 것은 철학적 관계론의 자기반성이었습니다. 자본의 개념에서 착취의 내용을 짚어 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정보의 개념에서 허구의 내용을 짚어 낼 수 있었던 것도 관계론의 철학적 자기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론의 철학적 자기반성은 나무 한 그루나 사람 한 개인에다 그 중심 축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나 사람 전체에다, 더 나아가서 인간 삶 전체에 그 중심 축을 두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질마저도

타인과 관계하는 데 있고 인간의 사유 역시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의식 생활을 실현하는 데서 그 실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인간의 사회성이야말로 곧 인간성 자체와 일맥 상통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미 찾아 살아왔다면, 완벽한 존재론적 인식 보다 인간 삶의 관계론적 이해가 우리에게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로써 이론보다 실천이 더 근원적이라는 주장이 우리의 심중에 더욱 와 닿습니다. 미학 이론이나 역사 이론에 있어서도 그 이론이나 법칙 자체가 미를 창작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만든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아름다움의 내용과 역사적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인간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반추됨으로써, 본래적 인간의 참 모습 그대로가 그때 그때마다 사심 없이 드러내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논리학이라고 해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론이라고 해서 만고의

진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형이상학이 불변의 존재론을 언제나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옥 아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삶의 생성으로부터 삶 자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근원성으로 되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 때, 어떠한 존재론에서도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현실적 삶을 우리가 되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고 한 예수의 말과 노자가 도를 영아(孺兒)로 표현한 것은 천상의 존재론적 개념을 인간의 삶을 통한 가능성 실천 개념으로 바꾸어 이상을 현실로, 그리고 현실을 그 본래의 뿌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영아와의 사심 없는 관계를 통해서만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언제나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또 우리들 자신이 언젠가 전체 삶 속에서 그 어린 시절, 그 참된 모습을 그대로 경험한 바 있기에, 그 뿌리로 사심 없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란 고향에서의 자기 모습이고 유년 시절의 자기 모습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아무리 늙어도 동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한 동심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매순간을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본래의 초심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초심의 영역을 우리가 인간 삶 전체의 근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의 생동성을 인간 삶의 내적 근원성으로 설정하고자 한 것이고, 그 까닭은 그것이 갖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실천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성을 되찾게 하는 것이고, 이것의 실천 가능성은 경험적 관계론의 단초로서 직관을 통하여 '사람의 사람됨'을 각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이란 처음부터 인간 삶에 연관되어 있는 미적 개념이고 감성 개념이며 인간을 본래 그대로 되살리게 하는 인간 해방의 관문입니다. 문학이 현실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시(詩)가 우리를 어떻게 일장춘몽에서 깨어나게 하며, 예술 작품이 우리를 단숨에 일상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직관을 통한 인간 삶의 본래성과 근원성을 획득케 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가상공간의 모든 허구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오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하여 새로운 '사람의 세상'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삶 전체가 아무리 '사람의 세상'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삶 전체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직접적인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담보하는 철학적 관계론의 자기반성은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사회적·역사적 실천성으로 복권시키는 철두철미한 이해보로서의 비판이어야 합니다. 이는 철학이 기능이나 기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인간 자신을 지켜 주는 유일한 대처안임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

#### 백승균

한국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거쳐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서 인문대 학장, 교학부총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철학회 회장을 지냈다. 『변증법적 비판 이론』, 『철학적 해석학』, 『역사의 기원과 목표』, 『인식의 해석학』, 『철학의 현실 찾기』 등의 역·저서가 있다.